

공매도 부활에 변동성 '경고등'... 유동성 기대 vs 충격 우려

증시, 코스피 질주 속 변수 긴장
대차 급증에 단기 조정 경계감 ↑
외국인 유입 기대에 전망 엇갈려
시장 충격 가능성 투자심리 '흔들'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증시 변동성 이미지.

코스피가 2600선을 뚫으며 꽃샘 추위 극복하고 맹렬한 질주를 하는 가운데 이달 31일 전면 재개를 앞둔 '공매도 부활'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공매도 재개로 인한 단기 조정으로 코스피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며 '반대'하는 측과 글로벌 투자자본의 유입으로 한국 증시가 한단계 성숙하는 '벨류업' 주장이 엇갈리면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추후 주가가 떨어지면 내린 가격에 주식을 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내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에 거품이 끼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또 공매도가 사실상 기관과 외국인의 '놀이터'라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공매도, '유동성 확대' vs '변동성 우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공매도가 재개되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망이 많다.

NH투자증권은 '공매도 재개의 시장 영향 점검'이란 보고서를 통해 "공매도 재개에 따른 주식 거래 활성화 효과는 유가증권시장보다 코스닥시장에서 더 부각될 것"이라며 "과거 사례를 볼 때 공매도 재개로 확대되는 유동성은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공매도 재개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일단 외국인 수급이 개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통상 외국계 펀드는 롱-쇼트 전략을 함께 사용하는데, 쇼트가 가능해지면서 동시에 매수 포지션도 늘어나 유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배철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수급은 저점을 통과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 비중을 낮추기보다 확대할 여력이 크다"고 말했다.

배철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재개가 유동성을 확대해 오히려 변동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공매도 재개 이후 외국인 투자자의 매매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외국인의 국내 주식 및 선물 수급이 저점을 지나고 있으며, 한국 주식 비중을 확대할 여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공매도 자체가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결정짓는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과거 공매도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이 제한적이었던 만

큼, 공매도를 다시 허용한다고 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낮다는 것이다. 오히려 공매도가 본질 가치에 맞춰 주가를 조정하는 순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해서 증시가 폭락할 것이라는 주장은 과도한 해석이며, 반대로 공매도 허용이 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이라고 보는 것도 무리한 기대"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 가능성이 언급되지만, 그로 인해 주가가 의미 있게 오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주가는 기업의 수익성과 펀더멘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며, 공매도 재개 여부는 증시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보다는 투자자 심리에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반면 변동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지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재개가 유동성을 높이고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을 키우는 등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지수 하락과 업종 간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과거 세 차례 공매도 재개 시 코스닥 시장에서 1개월간 충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이번 공매도 재개는 한 달가량 시장 변동

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고PBR(주가순자산비율) 종목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과거 공매도 잔고 많았던 종목 유의해야
시장은 벌써부터 들썩인다. 올해 1월 2일 47조3358억원이던 대차잔고는 21일 62조383억원으로 불었다. 증권가에서는 대차거래 잔고가 늘어나거나 고평가되고, 과거에 공매도가 많이 이뤄졌던 종목을 중심으로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김민규 KB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공매도의 대기자금으로 볼 수 있는 대차잔고가 늘어나는 업종이 있다"며 "화학, 철강, 조선, 배터리 등"이라고 짚었다. 이어 "대차가 늘었다고 반드시 공매도가 물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대부분 공매도 금지 전에 공매도가 활발했기에 공매도 재개 이후에도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과거 공매도가 많이 이뤄졌던 종목도 다시 공매도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숏 포지션(매도전략)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많았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 직전 거래일인 2023년 11월 3일 기준 코스피 공매도잔고 비중 상위 종목에는 이차전지, 화학, 관광 관련 종목이 대거 포진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홈플러스 사태에 비우량 CP·전단채 발행 '뚝' "세계인의 식탁에 K-시드 심겠다"

A3 이하 발행 58.95% 급감
증권가, 차환도 선별적 대응
투자심리 위축에 고객문의 ↓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이후 비우량 등급의 기업어음(CP)과 단기채권 발행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크레딧시장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지난 4일부터 20일까지 발행된 CP와 전자단기사채 규모는 81조109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8조7752억원 대비 약 38.00% 증가했다.

그러나 신용등급 'A3' 이하 비우량 등급 채권의 사정은 다르다.

이달 4~20일 A3 등급 이하 CP와 전

단채는 2296억원 발행돼 5593억원이 발행됐던 전년 동기 대비 58.95% 급감했다.

전체적인 CP와 전단채 발행은 전년 대비 늘었지만, 비우량 등급의 발행은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지난 1월과 2월 A3 등급 이하 발행액이 각각 1조628억원, 1조391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이달 들어 발행 규모는 크게 축소됐다.

이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증권사가 비우량 등급의 CP와 전단채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 증권사의 채권 담당자는 "현재 A3 등급은 신규 발행 검토를 하고 있지 않으며, 차환 발행에 대해서도 매우 보수

적으로 접근하면서 대부분 상환 처리했다"며 "선별적으로 차환하고 있어 발행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A3 등급 기업에 대한 불신이 커져 고객 문의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다"며 "상품을 취급하는 리테일 채널 또한 판매를 거의 중단한 상태이고, 추후 상품 판매에 대한 검토를 다시 시작하더라도 이전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상품 심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3 등급 시장 자체가 A1~A2 등급 기업에 비해 발행량이 많지 않아 단기자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동안 시장 조달이 가능했던 A3 등급 기업들은 다른 조달 방향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코스닥 CEO 인터뷰

류경오 아시아종묘 대표

"국산 종자 우수성 널리 알릴 것" 강조
3년 내 해외매출 비중 50% 이상 목표
기능성 종자로 새 성장 동력 마련도



류경오 아시아종묘 대표.

"전 세계 종자 시장에 K-시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종자회사로 자리 잡겠다."

국내 종자산업의 선두주자인 아시아종묘가 세계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류경오 아시아종묘 대표는 지난 1992년 '아시아나 종묘'로 출발해 2004년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종자 개발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류 대표는 "세계인의 먹거리를 우리의 정성과 노력으로"라는 좌우명을 바탕으로 종자 국산화와 수출에 집중하며 국내 종자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왔다.

◆국산 종자, 세계로 뻗어간다

아시아종묘는 창업 초기부터 특수채소와 쌈채소의 국산화에 주력했다. 상추, 치커리, 청경채 등에서 시작해 양배추, 무, 브로콜리, 콜라비 등 배추과 채소와 수박, 멜론, 참외 같은 열매채소 종자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현재는 양배추, 수박, 토마토, 고추, 오이 등 다양한 종자를 자체 개발·생산해 국내외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특히, 기능성 작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당노병 환자에게 이로운 혈당강화 성분 AGI가 풍부한 '미인꽃고추', 향산화 물질 안토시아닌이 다량 함

유된 자색 잎 청경채 등은 아시아종묘의 대표적인 기능성 품종이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아시아종묘는 IR52 장영실상 대통령상, 전미주품종상(AAS),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R&D에 집중... 글로벌 경쟁력 강화

아시아종묘의 경쟁력은 연구개발(R&D)에서 나온다. 200명에 달하는 임직원 중 절반 가까이가 연구개발 인력이다. 류 대표는 "국내 종자 산업은 유통 중심으로 자원이 쏠려 있어 자체 연구개발에 어려움이 많다"며 "아시아종묘는 R&D에 집중해 새로운 품종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 변화와 병충해 같은 시장 위험 요소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류 대표는 "기후 변화로 농작물 재배 면적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내병성과 다수확 품종 개발이 중요하다"며 "스마트팜 농가에 적합한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환 기자

수주잔고 '경풍'... 실적·주가 동반 질주



관심종목

엠앤씨솔루션

엠앤씨솔루션이 해외 수출 비중 확대에 힘입어 실적 성장세를 이어가며 주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방산 수출 확대와 수주잔고 증가가 주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며, 투자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엠앤씨솔루션의 주가는 지난 21일 기준 전 거래일 대비 5.

59% 오른 8만5000원에 마감했다. 이는 전달 대비 약 21.6% 상승한 수치다. 방산 수출 확대와 수주잔고 증가가 주가 상승의 배경으로 꼽힌다.

엠앤씨솔루션의 지난해 총 수주잔고는 9570억원으로 전년 대비 68.1% 증가했다. 2022년 수주잔고가 3451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업계에서는 폴란드형 K9 자주포와 K2 전자, 중동형 천궁2가 2028년부터 2029년까지 지속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한다. 여기에 루마니아 K9 자

주포, 호주 레드백 장갑차 등 추가 수출 계약까지 성사될 경우 매출 성장과 마진 개선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엠앤씨솔루션은 지상·유도·해상·항공·레이저·우주 등 방산 분야에서 유압식 및 전기식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주요 제품으로는 ▲지상화력 분야(K9, K2, 레드백 등) 유압 및 현수장치 ▲유도 분야(천무, 천궁) 발사대용 유압시스템 ▲항공기(KF-21, KUH) 연료 조절 장치 및 유압펌프 등이 있다. 엠앤씨솔루션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2828억원으로 전년 대비 56.3%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345억원으로 60.5%, 순이익은 270억원으로 71.4% 늘었다. /김대환 기자 kdh@